‘아파트먼트’의 개념에 관한 최초 기사 고찰
-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 -

박상현*
koreaswiss@hanmail.net

<목次>

1. 들어가며
2. ‘아파트먼트’의 최초 기사는 언제인가
2.1 1922년
2.2 1925년
3. 1924년의 가능성
4. 마치며

主題語: 아파트먼트(apartment), 식민지 조선(Colonial Joseon), 1922년(1922), 1924년(1924), 1925년(1925)

1. 들어가며

우리에게 아파트먼트는 무엇일까?[1] 물론 거주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아파트먼트는 단지 ‘사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품’이기도 하다. 아파트먼트는 공산품과 같이 규격화되어 있고, 다른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가 자주 발생하기에 환금성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아파트먼트는 특별한 ‘곳’이면서도 특별한 ‘것’이기도 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가 흔히 쓰는 ‘아파트’는 영어 ‘아파트먼트 하우스’의 약칭이다. 그런데 ‘아파트먼트 하우스’는 프랑스어 아파르트망(appartement)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즉, 18세기 프랑스 귀족의 대저택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공간의 집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각각의 공간을 아파르트망이라고 했다. 그런데 프랑스혁명 이후 귀족계급이 몰락하면서 그들이 소유하던 대저택이 아파르트망 단위로 신흥 도시 중산층에게 분할 임대되게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아파르트망을 위생적이며 전망 좋은 도시형 고밀도 주택이라는 뜻으로

*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우리는 아파트먼트 하우스(apartment house)를 ‘아파트먼트’로 줄여서 부르거나 이것을 더욱 축약하여 ‘아파트’라고 칭한다. 그리고 ‘아파트’는 이한섭도 지적했듯이 영어 ‘apartment house’의 앞부분(apart)만으로 만든 일본식 축약어인 ‘アパート’의 우리식 표기다.
이한섭(2014)『일본어에서 온 우리말』고려대학교출판부, p.530

‘프랑스식 일류 공동주택’이라는 선전 문구를 내세워 상품화한 것이 바로 ‘아파트먼트’였다.[2)]

박철수는 식민지 조선에서 사용됐던 ‘아파트먼트’에 대한 사전적 및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3)]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거나 일부를 갖추고 있어야 ‘아파트먼트’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구조 형식과 재료 측면에서는 내진·내화 성능을 갖춘 철근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블록·벽돌 등을 사용하고, 3층 이상이고, 한 층에 거실·침실·주방·변소 등을 갖춰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외향은 모던한 디자인으로 20세기 서양의 건축 사조를 반영하고, 독신자뿐만 아니라 가족 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형 공동주택이며, 평면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도·전기·가스·수세식 변소나 쓰레기 처리 시설인 더스트슈트 등 다양한 근대적 설비와 편의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공동세탁장이나 옥상의 공동 건조장을 확보하며, 근대적인 가로 체계에 대응해 연도형(沿道型)으로 배치해야 한다.[4)] 박철수가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파트먼트’란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처음 소개된 것은 일제강점기라고 한다.[5)] 즉, 앞서 『한국건축개념사전』에서도 확인했듯이 한국건축학계는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을 ‘아파트먼트’라고 정의(定義)하면서 이와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아파트먼트’가 언제 처음 우리에게 소개됐는가에 대해 논해 왔다. 그 결과 한국건축학계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건축인이 만든 조선건축회(朝鮮建築会)의 기관지인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에 실렸던 ‘내지(內地)’ 곧 일본 국내의 건축 관련 기사를 통해 ‘아파트먼트’의 개념이 식민지 조선에 처음 소개됐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 통설이 사실(fact)이라면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아파트먼트’는 1925년에 식민지 조선에 처음 들어온 것이 된다.

본고에서는 한국건축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의 개념이 식민지 조선에 언제 처음 소개됐는가에 대한 기존 논의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6)] 1920년대 초반의 신문 등에 영어 ‘apartment house’를

2) 박철수(2013)『한국건축개념사전』동녘, pp.615-616
3) 박철수(2013) 앞의 책, pp.616-617
4) 박철수(2013) 앞의 책, p.618
5) 강조하지만 본고는 ‘아파트먼트’라는 ‘표기’가 언제 처음 보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라는 ‘개념’이 언제 처음 확인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6) 1909년 11월 18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아멧트아파트’가 보이는데 이것은 ‘○○○아파트먼트’가 아니라 인도의 서부에 위치한 구자라트(Gujarat) 주(州)의 최대 도시인 ‘아메다바드(Ahmedabad)’를 가리킨다.

우리말로 '아파트먼트'로만 옮긴 사례가 종종 보이지만 이런 기사는 그 시기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고 본고에서는 최초라고 인정하지 않는다.[7]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아파트먼트'는 대단히 생소[8]했기 때문에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기만 한 이런 표기만으로는 'apartment house'의 개념 곧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한국건축학계가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1925년설, 곧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먼트'의 개념이 1925년에 식민지 조선에 소개됐다는 통설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선건축회의 기관지였던 『조선과 건축』과 더불어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됐던 신문 등을 다시 검토한다.

2. '아파트먼트'의 최초 기사는 언제인가

2.1 1922년

국내에서 '아파트먼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본어학 학자와 건축학 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일본어학 학자를 살펴보자. 이들 연구자는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아파트먼트'를 고찰한 후 일본식 외래어[9]인 '아파트'라는 말은 우리의 언어생활에 완전히 정착해서 앞으로도

이곳에서는 당시 인도 총독에 대한 인도 폭력파(인도 민족주의 운동의 한 계파)의 폭탄 투척이 있기도 했다.
대한민국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편(1991)『한민족독립운동사10:제국주의와 아시아의 민족운동』국사편찬위원회, p.59

7) 예컨대 1921년 9월 16일자 조선일보에는 기담(奇談)탐정소설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파-트매ㄴ트'(원문 그대로)가 나온다. 그런데 이 말은 프랑스 파리(巴里)에 있는 파리스 호텔의 415호를 가리킨다. 그리고 415호에는 방이 세 개 있었다고 한다. 결국 기담탐정소설에 보이는 '아파트먼트'는 본고가 고찰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라는 개념이 아니다.
조선일보(1921.9.16.)「기담탐정소설 제1회 학살(虐殺)」

8) 1933년 5월 13일자 조선일보에는 서대문 형무소를 '죄수 아파트'라고 부를 만하다는 서술이 보인다. 또한 1933년 잡지 『신동아』에 실린 「모던語點考」에서는 '아파트먼트'를 "一種의 旅館 혹은 下宿"이라고 말한다. 이정도로 당시 '아파트먼트'는 낯설었다.
조선일보(1933.5.13.)「思想犯逐年增加 五百名新收容監 -『모-던』建囚人『아파트』로」
심우갑·강상훈·여상진(2002)「일제강점기 아파트 건축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제18집, 한건축학회, p.164(재인용)

통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논문으로는 이덕배·이연희의 「10·20대 한국인의 일본식 외래어 사용실태 및 인식」[10]과 정보희의 박사학위논문 「한국어에 들어온 일본식 표현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연령별·성별 사용을 중심으로」[11] 등이 있다.

다음으로 건축학 학자를 살펴보자. 추후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건축학 학자가 발표한 글에서 일제강점기 '아파트먼트'에 관한 것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에 건설된 '아파트먼트'의 주거 형식, 건축 계획, 건축 주체와 거주 대상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를 남겼다. 이런 연구 속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가 언제 최초로 식민지 조선에 소개됐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같은 건축학 학자의 글에서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경아의 『경성의 주택지』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대폭 보강한 것인데,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20세기 초반 일본의 아파트 건축 상황은 건축 잡지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전달된다. 《조선과 건축》을 보면 아파트에 대한 첫 기사는 **1922년** '게이샤 **아파트(藝妓アパートメント)**'라는 **오사카**에 지어진 게이샤들을 위한 아파트에 대한 소개였다.[12]

위 인용문에서 그는 조선건축회[13]가 발간했던 『조선과 건축』에 아파트(アパートメント)에 관한 첫 기사가 보이고, 그것은 1922년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경아가 언급한 '1922년'은 통설과는 다른 지적이었다. 당시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아파트먼트'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25년'이라는 것이 통설이었다.[14]

그러나 그의 주장은 오류였다. 그가 참조한 1922년에 발간된 『조선과 건축』에는 '게이샤 아파트'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게이샤 아파트'는 1930년 8월에 발행된 『조선과

---

9) 일본어식 외래어라고도 부른다.

10) 이덕배·이연희(2019)「10·20대 한국인의 일본식 외래어 사용실태 및 인식」『일본어교육』제90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13-115

11) 정보희(2019)「한국어에 들어온 일본식 표현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연령별·성별 사용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96-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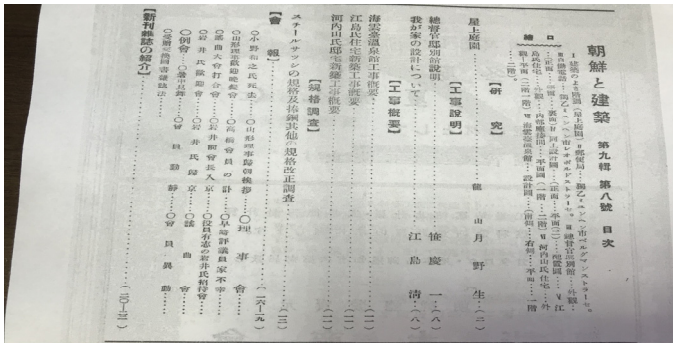
12) 이경아(2019)『경성의 주택지』집, p.318
강조 표시는 인용자.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이하 같음.

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조선건축회는 1922년 4월 30일에 일본인 건축인들에 의해 결성된 건축 단체라고 한다. 기관지인 『조선과 건축』은 1922년 6월에 창간호가 발행됐고, 1945년 7월과 8월 합병호인 24집 제4호까지 발행됐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1933(검색일: 2021.4.12)

14) 하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이경아의 주장에 대해 건축학계 등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건축』의 제9집 제8호에 나온다.

<이미지1> 목차①


朝鮮と建築　第九輯　第八號　目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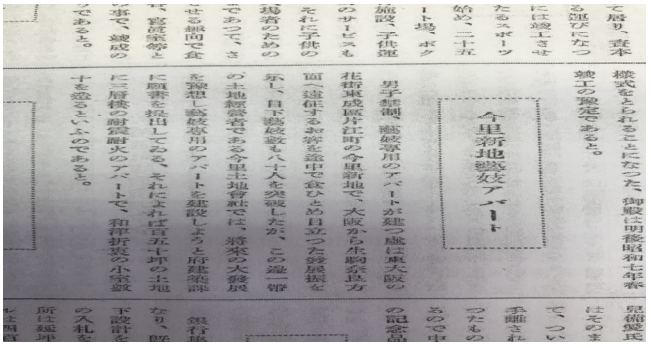
맨 오른쪽에 ‘조선과 건축 제9집제8호(朝鮮と建築　第九輯第八号)’라고 적혀 있다

<이미지2> 목차②

【建築雜報】

맨 오른쪽 위에 ‘건축잡보(建築雜報)’라고 나와 있다. ‘건축잡보’ 중간 단락의 왼쪽에서 다섯 번째에 ‘이마자토신치 아파트(今里新地藝妓アパート)’가 보인다.

<이미지3> '이마자토신치 아파트'의 내용[15]


今里新地藝妓アパート

이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마자토신치(今里新地) 게이샤 **아파트(アパート)**」
남자 출입금지인 게이샤(藝妓) 전용 아파트가 건립되는 곳은 **히가시오사카(東大阪)**의 유곽 지역인 히가시나리구(東成区) 가타에초(片江町)의 이마자토신치다. 이곳은 오사카(大阪)에서 멀리 떨어진 이코마(生駒)·나라(奈良) 쪽으로 놀러가려던 손님을 중간에서 멈추게 하여 (요즈음) 눈에 띄는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게이샤 숫자도 88명을 돌파했다. 이 일대의 토지 경영자인 이마자토 토지회사는 앞으로 큰 발전을 예상하여 게이샤 전용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오사카부(府)의 건축과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150평 규모의 토지에 3층으로 된 내진(耐震) 및 화재에 잘 견디는 아파트 곧 일본과 서양의 주택 양식을 절충한 작은 방 수 십 개를 만든다고 한다.**[16]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게이샤 아파트'는 히가시오사카의 히가시나리구 가타에초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내진 설계까지 갖춘 3층짜리 건축물이었다. 일본과 서양을 절충한 이 '게이샤 아파트'에는 수 십 개의 방이 있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한국건축개념사전』과 박철수의 지적(주4)에도 나와 있듯이 '아파트먼트'의 개념이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게이샤 아파트'는 '아파트먼트'에 해당한다

15) 일본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今里新地藝妓**アパート**」
男子禁制、藝妓専用のアパートが建つ処は**東大阪**の花街東成区片江町の今里新地で、大阪から生駒奈良方面へ遠征するお客を途中で食ひとめ目立った発展振を示し、目下藝妓数も八十八を突破したが、この邊一帯の土地経営者である今里土地会社では、将来の大発展を豫想し藝妓専用の**アパート**を建設しようと府建築課に願書を提出してゐる、それによれば**百五十坪の土地に三階樓の耐震耐火のアパートで、和洋折衷の小室数十を造るといふのであると**。

16) 朝鮮建築會編(1930)『朝鮮と建築』第九輯第八號 朝鮮建築會, p.31

고 볼 수 있다.

결국 이경아는 1930년 8월에 발행된『조선과 건축』에 나오는 '게이샤 아파트'에 관한 기사를 1922년의 기사로 착각했다. 그의 오류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이경아의 언급과 달리 일본어 원문에는 '아파트먼트(アパートメント)'가 아니라 '아파트(アパート)'로 표기되어 있다. 학술논문에서는 원문 표기를 정확히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1920년대 초반에는 '아파트먼트'라는 표기와 '아파트'라는 표기가 경합을 했는데, 점차 고급형(高級型)은 '아파트먼트'[17]로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파트'[18]로 구분하여 부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19] 또한 '게이샤 아파트'가 지어진 곳은 원문에 의하면 '오사카(大阪)'가 아니라 '히가시오사카(東大阪)'였다.[20]

2.2 1925년

우리에게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25년에 발간된『조선과 건축』제4집제9호에 실린「건축잡보(建築雑報)」에 나오는 '동윤회[21] 아파트먼트(同潤会のアパートメント)'에 의해서라는 것이 건축학계의 통설이다. 이 설(說)을 주장하는 주요 논저를 발간 순서대로 열거하면서 각각의 논저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1925년설(說)을 누가 처음 주장했고,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심우갑·강상훈·여상진은 2002년에 발표한「일제강점기 아파트 건축에 관한 연구」에서

>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는 용어가 문헌을 통해 나타나는 시기를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유일의 건축전문지인『朝鮮と建築』에서는 1925년 '建築雑報'란에 '同潤会의 아파트먼트'라는 제목의 기사가 최초다.**[22]

17) 철근콘크리트로 된 주택 양식. 이후 점차 '맨션(マンション)'으로 부르게 된다.
18) 흔히 말하는 '목조(木造)아파트'를 가리킨다.
19) 小学館国語辞典編集部·日本国語大辞典第二版編集委員会 編集(2000)『日本国語大辞典』(第二版) 小学館, p.478
20) 이와 같은 기본적인 오류가 보이기에 건축학계는 이경아의 주장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21) 일본어로는 'どうじゅんかい'라고 읽는다. 본고에서는 '도준카이'가 아니라 '동윤회'로 적는다. 국내 논저가 '동윤회'로 표기하기 때문이다. 그 밖의 일본 지명은 일본식한자발음을 존중하여 표기한다. 그런데 이 '동윤회'는 1924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주택 문제 등 재난 복구 활동에 주력했다. 1941년까지 유지됐는데 이 단체의 활동으로 일본에서 '아파트먼트'가 대중화되었다.
22) 심우갑·강상훈·여상진(2002) 앞의 논문, p.161

라고 주장한다. 곧 그들은 1925년에 조선건축회가 발행한『조선과 건축』제4집 제9호에 게재된「건축잡보」(내지)의 내용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23]

그로부터 2년 후인 2004년에 강상훈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인「일제강점기 근대시설의 모더니즘 수용: 박람회·보통학교·아파트 건축을 중심으로」에서 앞서 인용했던 심우갑·강상훈·여상진의「일제강점기 아파트 건축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24] 이것은 그가「일제강점기 아파트 건축에 관한 연구」에서 심우갑 그리고 여상진과 함께 공동 저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강상훈은 그의 학위논문에서 좀 전에 인용한 1925년에 조선건축회가 발행한『조선과 건축』제4집제9호를 근거로 1925년설을 주장한다.

장림종·박진희는『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에서

> **아파트라는 용어와 건축 형식은 이미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소개되기 시작하였다.**[25]

고 말한다. 여기서 장림종과 박진희는 구체적으로 1925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1925년설을 주장하는 강상훈의 박사학위논문을 위 인용문의 참고문헌으로 각주에 표시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1925년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박철수는『한국건축개념사전』에서 앞서 몇 번 언급했던 강상훈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용하면서

>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조선건축회의 일문(日文) 기관지인《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의 <건축잡보(建築雜報)>에 '**동윤회(同潤会)의 아파트먼트'라는 제목으로 3층 규모의 콘크리트 아파트 건설 계획 기사가 실림으로써 아파트라는 말이 처음 소개되었다.**[26]

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아파트-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27] 그리고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서도 1925년에 조선건축회가 발행한『조선과 건축』제4집제9호를 근거로 1925년설을 주장한다.[28]

마지막으로 홍성인·임수영은「대한민국 1세대 아파트를 통해 본 한국인의 주거문화 변화에

---

23) 朝鮮建築會編(1925)『朝鮮と建築』第四輯第九號 朝鮮建築會, p.44
24) 강상훈(2004)「일제강점기 근대시설의 모더니즘 수용: 박람회·보통학교·아파트 건축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2
25) 장림종·박진희(2009)『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효형출판, p.112
26) 박철수(2013), 앞의 책, p.615
27) 박철수(2013)『아파트-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마티, p.37
28)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8435(검색일: 2021.4.12)

관한 연구」에서 특별히 참고문헌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또한 ‘1925년 일본에 의해 발간된 잡지’가 무슨 잡지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 **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일제 강점기로 알려져 있다. 1925년 일본에 의해 발간된 잡지에 처음으로 ‘아파트먼트’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고,** 1931년 ‘삼천리’라는 잡지에 경성의 여성 합숙소를 ‘아파-트’라고 소개하면서 일반대중들에게 아파트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하였다.[29]

고 말한다. 하지만 홍성인과 임수영이 근거로 삼은 것은 본고에서 수차례 인용했던 1925년에 조선건축회가 발행한 『조선과 건축』제4집제9호였다는 것이 확실하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1925년설의 근거가 됐던 것은 아래와 같은 조선건축회가 발행한 『조선과 건축』제4집제9호였다.

> 「동윤회(同潤会)의 아파트먼트(アパートメント)」
> ·····후카가와(深川) 방면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에 대단히 싼 **월세(家賃) 임대 아파트먼트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먼트는 한 동(棟)에 12호(戸)에서 18호 내지 20호로 된 3층 콘크리트 건물로 하여 총 500호 혹은 800호를 만들 계획이다**. 월세는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한 호(戸)에 다타미[30] 3장에서 6장 혹은 4장 반(半)에서 6장으로 하여 보통 15엔에서 20엔 하는 것을 2엔에서 5엔 정도로 말도 안 되는[31] 저렴한 월세로 임대할 예정이다. **방 안 설비는 위생적이어서 화장실(便所)은 수세식이고 채광도 좋고 수도와 가스도 있다. 덧붙여 비용이 허락된다면 공동 목욕탕, 광장, 공설 시장 및 식당 등도 설치할 생각이다. ·····** 늦어도 올해 말에는 착공할 예정이다.[32]

---

29) 홍성인·임수영(2018)「대한민국 1세대 아파트를 통해 본 한국인의 주거문화 변화에 관한 연구」『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집』8권 4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p.987

30) 다타미(畳, たたみ)는 가로(1820mm)×세로(910mm) 곧 1.6562m2가 기본이라고 한다.

31) 원문에는 방점이 찍혀 있었다.

32) 「同潤会のアパートメント」
·····深川方面において最も必要を認むる場所に極めて安い**家賃のアパートメントを建設することになった。このアパートメントは一棟十二戸十八戸乃至二十戸の三階のコンクリート建**とし、**全部で五百戸乃至八百戸**を建る計画である。そして家賃は社会政策的の見地から一戸三畳に六畳又は四畳半に六畳とし、普通十五圓乃至廿圓の価値あるものを二圓乃至五圓といふそろばんはづれの安い家賃で貸し、**家内設備は衛生的にとあって便所は水洗式とし、採光をよくし、水道ガスの設備もあり、尚費用が許せば共同浴場、広場、公設市場及び食堂等も設けることになってゐる。·····** 遅くても今年度末には工事に着手する豫定である。
朝鮮建築會編(1925) 前掲雑誌, p.44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동윤회는 후카가와 방면 곧 도쿄도(東京都) 고토구(江東区)에 500호에서 800호 규모를 갖춘 콘크리트로 된 아파트먼트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 아파트먼트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위생을 고려하여 수세식 화장실은 물론 수도, 가스, 공동목욕탕, 광장, 식당 등과 같은 시설도 갖출 계획이었다. '아파트먼트'의 개념이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동윤회가 지을 건물은 '아파트먼트'에 해당한다.

결국 심우갑·강상훈·여상진이 2002년에 발표한 「일제강점기 아파트 건축에 관한 연구」에서 '1925년설'을 처음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된 것은 조선건축회가 1925년에 발간했던 『조선과 건축』제4집제9호였다.

3. 1924년의 가능성

본고에서 조사한 결과를 먼저 말하면 통설인 1925년 이전인 1924년에 조선인 언론인인 장덕수(張德秀)가 동아일보에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아파-트멘트'라는 말을 소개했다.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에 따르면 장덕수는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 부사장을 역임한 언론인이었다. 또한 그는 제국일본의 침략 전쟁의 협력단체였던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에서 이사로 활동한 정치인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이기도 했다.[33]

그런 장덕수이지만 1923년에서 1937년까지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는 민족 운동도 했다고 한다.[34] 그리고 그는 미국 유학[35] 기간 중에 동아일보에 미국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1923년부터 1924년까지 총 43회에 걸쳐 「米國[36] 와서」를 연재했고, 1924년에는 총 14회에 걸쳐 「米國의 大學」 등을 게재했다.

그런데 1924년 1월 12일자 「米國 와서」의 제41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중요한 내용이기에 좀 길게 인용한다.

---

33)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8376(2021.5.28)

34) 최선웅(2013)「미국유학시기 張德秀의 비밀결사 활동-大光과 大韓人同志會의 갈등과 통합」『한국인물사연구』한국인물사연구회, pp.484-486

35) 그는 오리건주(오리건주립대학교)와 뉴욕(컬럼비아대학교)에서 유학을 했다.

36) '美國'이 아니라 '米國'이라고 표기한 것이 흥미롭다. 일제강점기였기에 일본어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다음에 異常하게 生覺한것을 이야기하면 **居住의共同化**와飮食의 共同化라고 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或 한두살림이 한집안에서사는 것은 別로 異常한것이아니지만은 **멧十戶 멧百戶의 家庭이 한집안에서 살림을 한다면 그것은 想像도못하야볼것이오** 더욱이 **그런『모듬살림』을 爲하야 宏壯한집을 지어노코 그집을 세노아서 一種의營業을 한다면 그것은 쑴에도 生覺할수가업슬것갓소이다.** 그러나 이곳(미국. 인용자)에서는 所謂『**아파-트멘트』라는 五六層의 宏壯한집이 여긔저긔드문々々히 城郭과가치 서잇서서**[37] **그안에서 멧十戶式의家庭이 살림사리하는例**가 적지아니하고 ····· 그러고 飮食으로말할지라도 다른것은 말할것이업시 民衆的의 가장 標本이라고할만한 **『캐피테리아』**[38]**를 들어말하면 그것은 맛치 우리나라의 선술집模樣으로된것인대 곳 各色飮食을 눈압헤 번려놋코 누구든지 들어가서 自己의마음대로 그먹고십흔飮食을골라먹게된것입니다. ····그飮食먹는制度가 선술집模樣으로 그곳에 드러서는사람이면 누구든지 自己의손으로 飮食을 고르고 自己의손으로 그것을 소반에담아서 食卓에갓다먹게 되앗다는말입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선술집이라면 依例히 勞動者나 돈업는사람이 가는 곳이오 決코 紳士나兩班은 발부칠곳이 아닌줄로아지만은 이곳의『캐피테리아』에서는 그러치아니합니다. 大統領도 그곳에가서 朝飯이나 點心을 먹을수도잇고 勞動者도 거긔가서 갓흔食卓에석기어서 飮食을 먹을수가잇게되앗슴니다. 事實上 아파-트멘트에서 살림을하는家庭의대부분은 이러한 캐피테리아에서 食事를하고산다고하야도 過言이아님니다.·····**[39]

위 인용문에서 장덕수는 몇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미국의 ‘아파-트멘트’의 구성과 그것을 임대로 영업하는 행위 그리고 성곽과 같은 5, 6층의 웅장한 ‘아파-트멘트’의 규모에 놀라면서 그런 미국의 ‘아파-트멘트’를 식민지 조선에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40] 또한 ‘아파-트멘트’에 사는 사람들이 식사하기 위해 ‘캐피테리아’를 자주 이용한다고 말하면서 ‘아파-트멘트’ 거주자의 근대적 라이프스타일까지도 알려주고 있다.

앞에서 몇 번 언급했듯이 본고에서는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을 ‘아파트먼트’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덕수가 「米國 와서」에서

37) ‘아파-트멘트』라는 五六層의 宏壯한집이 여긔저긔드문々々히 城郭과가치 서잇서서’라는 언급은 장덕수가 말하고 있는 ‘아파트먼트’가 구조적 및 재료적 측면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38) 카페테리아(cafeteria)를 가리킨다.

39) 동아일보(1924.1.12)「米國 와서」(41)
맞춤법 등 원문 그대로.

40) 본고에서는 서론 부분에서 “1920년대 초반의 신문 등에 영어 ‘apartment house’를 우리말로 ‘아파트먼트’로만 옮긴 사례가 종종 보이지만 이런 기사는 그 시기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고 본고에서는 최초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덕수가 동아일보 소개한 ‘아파트먼트’가 영어 ‘apartment house’를 우리말로 ‘아파트먼트’로만 옮긴 정도일까? 그렇지 않다. 그는 ‘아파트먼트’를 소개하면서 ‘주거의 공동화’를 언급했고, ‘임대를 하여 사업’을 한다고 말했으며, ‘5, 6층의 웅장한 집이 성곽’과 같다고 비유했다.

소개하는 '아파-트멘트'는 본고에서 쓰는 '아파트먼트'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식민지 조선에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통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최초 시기는 1925년이 아니라 그보다 1년 빠른 1924년이었을 가능성이 대두됐다.[41]

4. 마치며

일본인이 조직한 조선건축회의 기관지『조선과 건축』에 실린 기사를 근거로 하여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25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통설이었다. 그러나 본고에서『조선과 건축』과 더불어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됐던 신문 등을 다시 검토한 바로는 통설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장덕수는 1923년부터 동아일보에 자신의 미국 생활 체험을 담은「米國 와서」를 연재하고 있었는데, 제41회에 해당하는 1924년 1월 12일자「米國 와서」에서 그는 미국의 '아파-트멘트'를 식민지 조선에 소개했다. 여기에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가 나온다. 본고가 조사한 바로는 이것이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아파트먼트'에 관한 첫 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42]

---

41) 1923년 1월에 경성부(京城府)에서『근대도시와 주택(近代都市と住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행하는 잡지 중에 도시 및 주택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 가운데에 미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원식 아파트먼트 하우스(田園式アパートメントハウス)'가 나온다. 그러나 이 사례는 본고에서 '아파트먼트'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원식 아파트먼트 하우스'의 개념이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원식 아파트먼트 하우스'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원식 아파트먼트 하우스'는 도시가 아니라 도시에 가까운 교통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교외에 있는 것으로 반드시 상당한 면적의 밭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전원식 아파트먼트 하우스'는 '미국식 나가야(米国式長屋)'에 가깝기 때문이다.
京城府庶務科(1923)『近代都市と住宅: 京城府調査報告(第一編)』京城府, pp.43-51

42) 그렇데 건축학계는 장덕수가 1924년에 '아파트먼트'의 개념에 관해 언급했다는 것을 몰랐을까? 심우갑·강상훈·여상진이「일제강점기 아파트 건축에 관한 연구」에서 1925년설을 언급했던 2002년에는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21년 현 시점에서는 알고 있다. 박철수·권이철·오오세 루미코·황세원은 공저『경성의 아싸트』에서 장덕수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통설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첫째, 기존 통설에 대한 건축학계의 관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둘째, 의식은 했지만 건축학계에 속하는 학자이기에 전면적으로 학계

본고는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먼트’의 개념이 1925년에 식민지 조선에 소개됐다는 건축학계의 통설에 문제를 제기했다.[43] 본고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44] 이와 같이 일본학(日本學)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타 학계가 논의한 것을 일본학 연구자가 재검토하는 것도 일본학계가 우리학계에 공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통설을 비판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셋째, 장덕수가 소개한 ‘아파트먼트’의 개념이 ‘동윤회의 아파트먼트’의 개념보다 빈약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세 번째 가능성에 대해 부연하고자 한다. ‘아파트먼트’의 개념에 대한 장덕수의 언급이 ‘동윤회의 아파트먼트’보다 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장덕수는 ‘아파트먼트’를 소개하면서 ‘주거의 공동화’, ‘임대 사업’, ‘5, 6층의 웅장한 성곽 같은 집’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반해 ‘동윤회의 아파트먼트’에는 장덕수가 언급한 것 외에 수세식 화장실, 수도, 가스, 공동목욕탕, 공설 시장, 식당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하지만 본고가 몇 번에 걸쳐 말했듯이 ‘아파트먼트’의 개념은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기본이다. 이 개념에서 살펴봤을 때 장덕수가 소개한 ‘아파트먼트’는 ‘아파트먼트’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철수·권이철·오오세 루미코·황세원(2021)『경성의 아빠트』집, pp.110-111

43)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라는 개념이 1924년에 소개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아파트먼트’가 곧바로 식민지 조선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37년이 돼서야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가 최초로 지어진다. 잘 알려져 있듯이 충정아파트가 그것이다. 이것은 일본인이 건설한 것인데 그의 성(姓)이 도요타(豊田)였기에 초기에는 ‘도요타아파트’라고 불렸다. 이 충정아파트에 관한 연구도 건축학계가 중심이 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충정아파트의 일본인 건물주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예컨대 일본인 건물주의 성명을 포함하여 그가 언제 식민지 조선에 건너왔고,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건축학계의 연구가 충정아파트라는 건축물 그 자체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건축학계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일본인 건물주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도 일본학 연구자의 역할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44) 본고의 의의는 다른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박숙희는『반드시 바꿔 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에서 아파트는 아파트먼트 하우스의 일본식 줄임말이라고 지적한 후, 이 말은 “너무 오랫동안 써 오면서 굳어진 말이라 다른 적당한 말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언론에서 간간히 아파트 대신에 ‘공동 주택’이란 우리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대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한다. 박숙희는 위의 책에서 아파트는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에 이식된 일본식 외래어이기에 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대로 아파트가 일본식 외래어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언론인이었던 장덕수가 동아일보에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먼트’의 개념을 소개했듯이 당시 조선인도 아파트먼트를 식민지 조선에 알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고는 우리가 일상어로 쓰는 아파트먼트의 개념이 일제강점기에 ‘미국에서 제국일본으로, 제국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으로’와 같이 단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유입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숙희(1996)『반드시 바꿔 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한울림, p.289

【참고문헌】

대한민국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편(1991)『한민족독립운동사10:제국주의와 아시아의 민족운동』국사편찬위원회, p.59
강상훈(2004)「일제강점기 근대시설의 모더니즘 수용: 박람회·보통학교·아파트 건축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2
박숙희(1996)『반드시 바꿔 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한울림, p.289
박철수(2013)『한국건축개념사전』동녘, pp.615-616
_____(2013)『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마티, p.37
박철수 외(2021)『경성의 아빠트』집, pp.110-111
심우갑·강상훈·여상진(2002)「일제강점기 아파트 건축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제18집, 대한건축학회, p.161
이경아(2019)『경성의 주택지』집, p.318
이덕배·이연희(2019)「10·20대 한국인의 일본식 외래어 사용실태 및 인식」『일본어교육』제90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13-115
이한섭(2014)『일본어에서 온 우리말』고려대학교출판부, p.530
장림종·박진희(2009)『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효형출판, p.112
정보희(2019)「한국어에 들어온 일본식 표현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연령별·성별 사용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96-197
최선웅(2013)「미국유학시기 張德秀의 비밀결사 활동-大光과 大韓人同志會의 갈등과 통합」『한국인물사연구』한국인물사연구회, pp.484-486
홍성인·임수영(2018)「대한민국 1세대 아파트를 통해 본 한국인의 주거문화 변화에 관한 연구」『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집』8권 4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p.987
京城府庶務科(1923)『近代都市と住宅: 京城府調査報告(第一編)』京城府, pp.43-51
小学館国語辞典編集部·日本国語大辞典第二版編集委員会 編集(2000)『日本国語大辞典』(第二版), 小学館, p.478
朝鮮建築會編(1925)『朝鮮と建築』第四輯第九號 朝鮮建築會, p.44
_____(1930)『朝鮮と建築』第九輯第八號 朝鮮建築會, p.31
동아일보(1924.1.12)「米國 와서」(41)
조선일보(1921.9.16.)「기담탐정소설 제1회 학살(虐殺)」
_____(1933.5.13.)「思想犯逐年增加 五百名新收容監 -『모-던』建囚人『아파트』로」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1933(검색일: 2021.4.12)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8435(검색일: 2021.4.12)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8376(2021.5.28)

논문투고일 : 2021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7월 14일
1차 수정일 : 2021년 08월 03일
2차 수정일 : 2021년 08월 13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8월 20일

〈要旨〉

‘아파트먼트’의 개념에 관한 최초 기사 고찰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

박상현

한국건축학계에서는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처음 소개된 것은 1925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통설이었다. 그 근거가 된 것은 일본인이 조직한 조선건축회의 기관지 『조선과 건축』제4집제9호에 실린 기사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조선과 건축』과 더불어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됐던 신문 등을 다시 검토한 바로는 통설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됐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장덕수는 1923년부터 동아일보에 자신의 미국 생활 체험을 담은 「米國 와서」를 연재하고 있었는데, 제41회에 해당하는 1924년 1월 12일자 「米國 와서」에서 그는 미국의 ‘아파-트멘트’를 식민지 조선에 자세히 소개했다. 본고가 조사한 바로는 이 사례가 ‘철근콘크리트로 된 위생적인 도시형 고밀도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먼트’라는 개념을 소개한 첫 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일본학(日本學)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타 학계가 논의한 것을 일본학 연구자가 재검토하는 것도 일본학계가 우리학계에 공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A research of the first article on the concept of ‘apartment’

－‘Apartment’ as sanitary urban high-density apartment house made of reinforced concrete－

Park, Sang-Hyun

It has been widely believed that the term ‘apartment’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1925 based on an article published in『Joseon and Architecture』, an organ of the Chosun Architectural Association organized by a Japanese. However, after reviewing『Joseon and Architecture』and newspapers published in colonial Joseon in this paper, it was found that the popular opinion was not true. Chang Duck-soo, who wa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serially publishing “Come to the Country of America” in the Dong-A Ilbo since 1923, which contains his experiences of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he introduced the American ‘apartment’ to colonial Joseon in “Come to the Country” on January 12, 1924, the 41st episode. According to the research conducted by this paper, I think this article is the first article about ‘apartment’ as ‘sanitary urban high-density apartment house made of reinforced concrete’. In this way, I think that Japanese studies researchers can contribute to our academic community by reviewing what other academic circles have discussed about fields related to Japanese studies.